

韓國人の 場所와 正體性: 韓國學을 위한 試論

류제현*

The Relation between Place and Identity in Korea: A Preliminary Study for the Korean Studies

Je-Hun Ryu*

요약 : 종족(宗族)과 월남민(越南民)의 아이덴티티로부터 확인되는 한국인의 특정한 집단적 정체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산물이다. 한국학을 지향하는 한국 인문지리학이 설정해야 할 목적 중 하나는 현대 한국인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아이덴티티의 복합적이고도 경합적인 구성을 장소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보편적 한국인의 미래상, 즉 아이덴티티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한국 인문지리학은 아이덴티티, 장소, 이데올로기 또는 권력으로 구성되는 삼자 관계의 역동성, 지속성, 은밀성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특정 장소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때 한국 인문지리학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표는 전지구화의 시대에 적합한 장소 개념, 즉 외향적이고 진취적인 장소 의식을 한국인들에게 널리 전파시키는 것이다.

주요어 : 종족(宗族), 월남민(越南民), 한국학, 인문지리학, 장소, 아이덴티티, 장소 의식

Abstract : Based on the study of the lineage groups around Gyeongju City and the migrants from North Korea, it is recognized that any one of Korean group identities has not been naturally formed over a long time, but socially constructed. One of the project for the Korean human geography orienting toward Korean Studies is to examine, from the place perspective, the complicated and contested identities that modern Koreans are today sharing individually as well as in a group. From such an examination, it can explore specifically the future shape of the Korean identity upon which everybody can agree. To make the project successful, Korean Human Geography needs to start from the study of a specific place that would expose the triangular relations among the three elements: identity, place, ideology or power.

Key Words : the lineage group, the migrants from North Korea, Korean Studies, human geography, place, identity, sense of place

이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 2011학년도 KNUE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hryu@knu.ac.kr

1. 서론

‘아이덴티티(identity)’라는 개념은 오늘날 소련과 동구권의 이념적 몰락에 이은 문화의 시대에 인간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세기 후반 경제 전쟁의 시대에는 계층이나 계급이 인간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지만, 21세기 문화 전쟁의 시대에는 아이덴티티가 인간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아이덴티티는 의미하는 바를 그대로 따를 것 같으면 ‘같음’ 또는 ‘동일성(同一性)’으로 번역해야 옳다.

이에 반해, 한국의 학계에서는 동일성으로 번역하는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정체성(正體性)’이라고 번역하는 경향이 있다(Leem and Ryu, 2007, 586-588). 예전부터 사용해 오는 정체성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가 정착한 터에 아이덴티티의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는 것은 자칫 혼란을 초래하기 쉽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원어의 본래 의미를 살리려는 의도로 굳이 아이덴티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국가 간 경계가 없어지는 시대, 국가 간 자본과 정보의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 한 국가의 지역이나 지방이 다른 국가의 지역이나 지방과 직접적인 접촉과 교류가 가능한 시대에는 더욱 더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이 중요하다(Ryu *et al.*, 2010, 229-230). 아이덴티티가 과거와 같은 의미의 정체성과 동의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있다. 이제는 아이덴티티가 정태적이고 단일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태적이고 복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근래에 구미(歐美)의 지리학자, 특히 인문(문화)지리학자들은 아이덴티티와 장소(場所)와의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흔히 사람들은 장소, 공간, 영역(영토), 경관 등과 같은 물질적이고 지리적인 요소를 매개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한다. 또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물질적이고 지리적인 요소, 특히 장소가 그 결과물로 생산되기도 한다. 한국은 WTO에 가입한 다음부터 전지구화

(globalization)의 시대로 진입하여 지금까지 전지구화의 정도가 계속 심화되어 왔다. 현 정부는 아예 ‘글로벌(global) 한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입각하여, 본고는 ‘한국학으로서의 지리학’이 추구해야 할 연구 과제의 하나로써 장소와 정체성의 관계를 탐색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 즉 남한에 거주하는 우리들에게 아이덴티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우리들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성분들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때 장소는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장소는 아이덴티티 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아이덴티티의 형성과 장소는 동시에 어떠한 상호 작용을 주고받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전지구화의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체로 아이덴티티가 일정한 지리적 범위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한국이라는 국가 내부에서, 그리고 고향이나 거주지라는 지방의 범위 안에서 구축을 받으며 아이덴티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들의 아이덴티티에 영향을 주는 장소는 다양한 지리적 범위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유래하고 있다.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가 일정한 형상(形相)을 갖추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지리적 요소들은 장소, 공간, 영역(영토), 경관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장소들은 제각기 한국, 즉 남한에서 아이덴티티의 형성에 있어서 모종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우리들끼리 같다고 인식하는 기준이 되는 집단(의식)적 범주나 지리(물질)적 범주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분법은 현실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전자와 후자의 경계는 선명히 구분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종족(宗族)이나 집성촌, 동향의식이나 고향(이나 지역), 역사적 경험이나 기념물, 한민족이나 사적지(史蹟地), 남성이나 공적 공간, 소비자나 쇼핑 물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전부터 출현한 것이든 아니든 현대 한국인의 복합적인

아이덴티티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을 개별적으로나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약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종족(宗族)과 월남민(越南民)의 아이덴티티를 사례로 하여 한국인이 가지는 장소와 아이덴티티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들이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과정에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과정은 물론 우리들이 '남의 아이덴티티'나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분별하는 과정을 동반한다. '우리들의 같음'을 인식하는 과정은 반드시 '남들과의 다름'이나 '남들의 다름'을 인식하는 과정을 동반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들은 나와 남, 그리고 우리들과 그들을 분별하는 수단(이나 매개)으로 장소를 구체적으로 이용한다(Kim and Ryu, 2008, 601).

한국, 즉 남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누구일까? 이 때 우리들의 반대편에 있는 그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나와 남, 그리고 우리들과 그들을 분별할 때 빈번하게 이용하는 장소는 무엇일까? 이 때 우리들 반대편에 있는 장소는 무엇일까? 우리들을 동일한 종족(宗族)이나 문중(門中), 동일한 지역출신자, 동일한 민족, 동일한 남성이나 여성, 동일한 소비자층, 동일한 역사적 경험자, 동일한 직장인 등으로 규정할 때, 어떠한 장소가 이에 대한 수단이나 결과물이 될까? 본고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던지기에 앞서서 구미(歐美)의 인문지리학자들에 의해 그 동안 논의되어 온 장소와 아이덴티티에 관한 이론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장소와 정체성의 관계에 관한 이론

최근에 구미(歐美)의 제반 학계에서 아이덴티티(identity)의 개념을 둘러싼 진정한 토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기존의 개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Gay *et al.*, 2000, 1-5].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를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는 통합적

이고 원초적이며 단일한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상식적인 의미에서 동일시(identification)는 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공통의 기원이나 특성을 공유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구축된다. 하지만 이러한 동일시는 타자를 포함(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논리를 정연하게 꾸미는 것이고 내부적 결함을 봉합하는 것이며 자아(自我)를 과도하게 규정하는 것이다(Hall and Gay, 1996, 1-3).

그러므로 비판적 관점에서 제안하는 아이덴티티의 개념은 본질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지위적(地位的: positional)인 것이다. 이러한 아이덴티티 개념은 역사의 변천을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 없이 전개되어 온 안정된 자아(自我)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현대에는 아이덴티티가 결코 통합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더 분열되고 파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덴티티는 결코 단수가 아니라 상호 교차하고 상호 적대할 정도로 상이한 담론, 실천, 지위(position)를 거쳐 각양각색으로 구축되고 있다(Hall and Gay, 1996, 3-4).

실제로 아이덴티티는 존재하기(being) 보다는 오히려 무언가 되어가는(becoming) 과정에서 역사, 언어, 문화라는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Hall and Gay, 1996, 5). 이는 우리들은 어디에 있는가, 또는 우리들은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재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은 이러한 재현(representation)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장소 개념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아이덴티티가 곧 만나는 지점(地點: point)이라는 견해이다. 아이덴티티는 담론과 실천을 생산하는 과정, 그리고 주관(主觀: subjectivity)을 생산하는 과정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다. 즉 아이덴티티는 담론적 실천이 구축하는 주체(主體: subject)라는 지위(地位: position)가 일시적으로 부착되는 지점(地點: point)이다(Hall and Gay, 1996, 13). 또는 아이덴티티는 주체가 알고 있는 동안만큼은 항상 마땅히 차지해야 하는 지위이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는 하나의 고정된 사

물이나 존재가 아니라 지점을 이동하며 무언가로 화(化)하는 지위이다.

구미(歐美)의 인문지리학에서 지점은 곧 장소와 같은 의미로 치환되기도 한다. 장소는 발상지와 같이 선험적(先驗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공간을 조직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아이덴티티 구축에 있어서 특정한 장소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이러한 장소로부터 출발하고 도착하는 이동 통로(path)에 대한 접근성은 특별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장소는 아이덴티티의 선천적 분류 표시이기보다는 오히려 아이덴티티의 창조적 생산을 위한 원료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소는 진정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확고부동한 존재론적 사물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사건이 된다. 이때 사건으로서의 장소는 경계성(boundedness)과 영속성(permanence)보다는 오히려 개방성(openness)과 변동성(changeability)을 특징으로 한다.

장소가 사회적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비판적 인문지리학자들이 장소에 관한 문제를 접근하는 지배적인 태도이다(Harvey, 1996, 261; Cresswell, 1996). 장소가 사회적으로 구축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장소가 자연발생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인간적 요인이 장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곧 인간적 요인이 장소를 없앨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떠한 사물이 사회적으로 구축된다는 것은 곧 이러한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권력(power)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그동안 구미(歐美)의 인문지리학에서 장소는 지방적이고 특수한 것과 연관 지어 생각되어 왔으며, 지리적인 것은 과정이기보다는 오히려 정태적이고 고정된 관계의 집합으로 이해되어 왔다(Agnew and Duncan, 1989; Entrikin, 2002, 200). 하지만 최근 들어 구미의 인문지리학자들은 장소의 개념을 사실적인 것과 묘사적인 것을 넘어 도덕적인 것조차 포함하는 범위로 확장하고 있다. 이제 인문지리학자들은 지리학의 장소 개념을 전통적인 것, 구체적인 것, 특수적인 것에 대한 연구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장소는 인간 행위의 단순한 무대(setting)이기보다는 오히려 맥락(context)으로 이해되어야 한다(Entrikin, 1997,

263).

여기에서 맥락은 장소가 자아(自我)에 대하여 일정한 유형의 상호 건설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맥락이다. 왜냐하면 자아는 장소를 통하여 배경(milieu)이나 환경과 일정한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는 아이덴티티 구축에 있어서 장소를 자아에 관련시키는, 주체에 관한 문제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다. 또한 이는 공간에 입지한 온갖 사물을 넘어 도덕적인 것과 미학적인 것이 존재하는 세계로까지 장소의 의미를 확장하는 자아가 장소에 대하여 가지는 필연적 관계이다(Sack, 1992; Entrikin, 1997, 270).

이와 같이 확장된 장소의 개념은 장소의 아이덴티티가 순수하지 않다는 생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장소의 아이덴티티는 항상 부분적으로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며, 다른 장소를 초월한 관계 또는 다른 장소와의 관계의 산물이다(Massey and Jess, 1995, 67). 이러한 의미에서 ‘저항(resistance)’과 ‘뒤엉킴(entanglement)’이라는 개념은 장소들을 혼합시키고 특정한 형태를 부여하는 권력 관계를 분석하는데 매우 필요하다.

저항은 영웅적 투쟁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일상적 투쟁과 권력의 획득을 위한 상식적 투쟁을 모두 포함한다. 저항은 불공정과 불의에 대한 반작용, 또는 참을 수 없는 상황(conditions)을 벗어나려는 욕망으로부터 출발한다. 또한 저항은 무언가 더 나은 것을 기억하고 꿈꾸는 감각을 포함하지도 모른다. 이와 대조적으로, 뒤엉킴이라는 용어는 공간적 상상으로 가득 찬 은유적 표현(metaphor)을 의도하는 것이다(Sharp *et al.*, 2000, 24). 이는 지배와 저항의 관계를 마치 실에 꿰기, 매듭짓기, 찌기 등과 같은 동작에 빗대어 표현하는 용어이다.

구미(歐美)의 인문지리학자들은 저항이 장소를 전유(轉有: appropriation)하여 새로운 장소를 만드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이유에서 저항의 개념에 흥미를 가져 왔다(Pile and Keith, 1997). 그들은 지금까지 장소가 어떻게 지배뿐만 아니라 저항이라는 행위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규명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 방향으로의 지배는 다른 방향으로의 저항이 될 수 있다. 지배와 저항은 상호 독립적

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상대방으로 흡수되어 하나로 될 수 없다. 지배의 어떠한 순간이라도, 모든 형태의 지배는 저항과의 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으며, 또한 모든 형태의 저항은 지배와의 관계로부터 전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배와 저항이 연속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더 유용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지배의 순간에 대한 어떠한 탐구라도 지배하는 권력이 피지배층의 투쟁에 의해 지속적으로 분쇄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동일한 의미에서 저항의 순간은 또한 권력 관계의 구조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지배든 저항이든 모두가 자동적으로 출현하지 않는다. 저항은 지배로 불쑥 모습을 나타내고 지배는 저항으로 불쑥 모습을 나타낸다. 따라서 하나의 장소에서 나타나는 저항은 다른 장소에서 지배와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르며, 이러한 연루 관계로부터 '뒤엉켜진 지리(entangled geographies)'가 출현할지도 모른다(Sharp *et al.*, 2000, 21-24).

오늘날 우리들은 사물들이 움직이는 시간의 속도가 빨라지고 공간이 확대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고 더 많은 자본이 이동함에 따라 시간에 의해 공간이 무효화되는 이른바 시-공간 압축(time-space compress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들이 의미하고 관계하는 장소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동질적인 공동체가 거주하는 장소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은 분열과 와해의 세력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현재의 지구화 시대에 적합하도록 과거의 내향적이고 배타적인 장소 의식(sense of place)을 외향적이고 진취적인 장소 의식(sense of place)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Massey and Jess, 1995, 67). 이러한 장소 의식은 보다 더 넓은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의식하면서 지구적(global) 규모와 국지적(local) 규모의 장소를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느끼고 사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3. 사례 1: 경주시와 종족(宗族) 정체성

한국인 개인이나 집단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요소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성명(姓名)이나 성(姓)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성(姓) 한 글자와 명(名) 두 글자로 구성되는 성명으로 호칭되고 기억된다. 이러한 성명의 표기는 언뜻 보면 중국인의 성명과 같아 보이지만 구체적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국인이 사용하는 성명(姓名)은 중국에서 고대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는 성씨 제도를 형식적으로 모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상대방이 자신과 같은 성(姓)을 쓰더라도 자동적으로 자신과 같은 혈족(血族)이나 씨족(氏族)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자신과 동일한 성을 가졌지만 본관(本貫)이 다른 상대방을 자신과 같은 혈연 집단에 소속되었다고 여기지 않는다. 한국인은 비록 성(姓)의 한자 표기가 같더라도 본관(本貫), 즉 성(姓)의 발상지가 다르면 같은 씨족(氏族)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Jeon, 2001, 35-36). 뿐만 아니라, 한국인은 시조(始祖)를 공유하는 씨족(氏族)보다는 중시조(中始祖)로부터 씨족에서 갈라져 나온 종족(宗族)(宗中이라고도 불림)에 대한 소속감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유난히 강하다.

여말선초, 특히 조선 중·후기부터 주자학의 보급에 따라 한국인은 혈족 집단을 구별할 때 씨족이라는 개념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더욱 세분한 종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왔다. 종족은 부계(父系) 장자(長子), 즉 종손(宗孫)을 중심으로 중시조(中始祖)에 대한 제사를 공동으로 거행하는 혈족 집단이다. 종족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방법 중 하나가 본관지에 소재하는 종족 시조의 묘소를 비롯한 유적(遺跡), 유지(遺址), 유물(遺物)에 공동으로 참배하는 것이다. 씨족 집단의 시조에 대한 제사조차도 그 내부의 개별적 종족 집단을 기본 단위로 참여하는 경우가 더 보편적이다. 심지어 종족 집단이 예전과 같이 성(姓)을 유지하되 본관을 달리 붙임으로써 씨족 집단과 구별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하나의 종족(이나 宗中)은 내부적으로 다시 개별적인 문중(門中), 즉 계파로 갈라져 나가며 거주지를 확산함으로써 내부적으로

계파와 거주지에 대한 차이가 확대된다.

현재의 경주시 일대는 신라의 왕도 '서라벌'의 구역을 포함하는 바, 현재와 같은 성(姓)에 대한 호칭과 표기가 전국에서 가장 일찍이 사용된 곳이다. 실제로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되어 있는 경주부(慶州府)의 9개 성(姓)은 그 기원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한다(Kang, 2006, 9). 고려 초에 편찬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박(朴), 석(昔), 김(金)이 신라의 종성(宗姓: 왕실의 성)으로, 이(李), 최(崔), 정(鄭), 손(孫), 배(裴), 설(薛)이 육부성(六部姓)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한국인이 사용하는 성(姓) 중에서 경주를 본관으로 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Kang, 2006, 10). 그렇지만 이러한 성의 명칭에 본관의 명칭이 결합된 형태로 특정한 종족 집단을 지칭하는 경향은 최소한 고려 말에나 시작되었다. 신라시대 최초로 출현한 박, 석, 김, 이, 손과 같은 씨족 집단은 모두 고려 말 이후에 밀양 박씨, 경주 석씨, 경주 김씨, 경주 이씨, 경주 손씨 등과 같은 종족 집단으로 분파되어 나갔다.

조선시대에는 종족 집단들이 전국적으로 자기들 시조의 발상지, 즉 본관에 소재하는 시조를 비롯한 조상들의 묘소에 공동으로 제사지내는 행위, 즉 제례가 사회적 관습으로 정착하였다. 또한 사당, 묘우(廟宇), 능묘(陵墓), 비각 등과 같은 유교적 시설물들은 유교적 제례가 거행되는 대상이나 무대가 되었다. 현재 경주시 일대의 왕릉 자체는 신라시대의 산물이지만 그 주위의 유교적 시설물들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건설되고 유지되어온 것들이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대부분 조선 왕조가 통치 이념인 성리학을 보급하는 가운데 밀양 박씨, 경주 석씨, 경주 김씨, 경주 이씨 같은 종족 집단들이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설한 것들이다. 신라의 고도가 있었던 경주는 신라시대라는 한국의 역사를 대변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경주를 본관으로 하는 종족 집단의 아이덴티티를 표상하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

현재의 경주시 일대에서 종족 집단들이 지금까지 보존하고 관리해 오고 있는 유적(遺蹟)과 유지(遺址)들은 남산 서쪽 기슭, 계림(鷄林) 일대, 소금강(小金剛) 서쪽 기슭에 집중되어 있다(Kang, 2006, 17-19).

남산의 서쪽 자락에 위치한 경주시 탑동 남간마을 진입로에는 밀양 박씨의 시조인 혁거세의 탄생지(誕降地)인 나정(蘿井)이 남아 있다. 여기에서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육부촌장(六部村長)의 묘우인 양산제, 경주 최씨의 비조 소별도리공의 유허각, 경주 김씨의 참봉인 계림김공의 행적비, 경주 배씨 비조의 묘우인 경덕사, 밀양 박씨 소속 일성왕릉의 재실인 승성재 등이 남산 기슭으로 이어지면서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남산 기슭으로부터 평지 방향으로 밀양 박씨 소속의 오릉(五陵)을 비롯한 11기의 왕릉과 승덕전(崇德殿)이 분포한다. 계림을 중심으로는 경주 김씨 소속의 계림세묘, 미추왕릉, 내물왕릉, 승혜전(崇惠展), 승신전(崇信殿) 등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소금강산의 표암봉을 중심으로는 경주 이씨 소속의 유허비, 표암재, 옥강묘, 경모비, 광림대 등이 순차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경주시 전체가 경주를 본관으로 하는 종족 집단을 결속시켜주는 장소가 되기까지는 종족 집단끼리 경쟁적으로 시조를 비롯한 조상들의 유적(遺蹟)과 유지(遺址)를 인위적으로 치장하는 과정이 있었다. 조선시대 유교적 시설물을 조성하는 주체는 처음에 교화 정책을 추구하는 왕조나 국가였지만 나중에는 씨족이나 종족 집단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성리학이 더 이상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교적 시설물은 주로 종족 집단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강화하는(테) 물질 기반으로 이용되었다.

오늘날에도 유력 종족 집단은 친목의 도모와 사회적 결속의 강화를 위해 전국적 규모의 조직을 구심점으로 성리학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종족 아이덴티티의 구축을 추구해 오고 있다. 이러한 조직은 지역과 종족에 따라 종친회(宗親會), 화수회(花樹會), 대종회(大宗會), 종문회(宗門會), 동종회(同宗會), 종회(宗會)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다. 다양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중요한 활동의 하나는 시조나 중시조의 유허, 유적, 유물 등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시적인 물질적 요소들은 종족 집단의 근원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다른 종족 집단과 차별되는 종족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라의 종성에서 출자한 밀양 박씨, 경주 석씨, 경주 김씨는 전릉(殿陵)의 수호를 위해 보존회를 구성하고 참봉(參奉)이라는 직책을 임명하고 있다. 참봉은 오늘날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소수자로 자임하며 전릉의 수호는 물론 유교적 제례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Kang, 2006, 77-81). 참봉을 중심으로 하는 종족 집단의 제례 활동은 이에 참가한 종족 구성원들에게 행동적 내부성과 함께 감정적 내부성(內部性)을 심어 주면서 장소를 매개로 하는 종족 집단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수련회를 통해 종족 아이덴티티는 다음 세대로 전승되고 재생산되며, 이러한 아이덴티티의 재생산은 또한 전릉과 같은 종족 고유의 장소를 보호해야겠다는 의식의 강화로 이어진다.

조선왕조는 성리학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채택하고 종교적이고 교화적인 수단으로 유교적 제례를 강조하였다. 조선왕조는 역대 왕조의 도읍지에 시조왕의 탄강지를 비롯한 전묘(殿廟)를 설치할 때 그 건물은 유교적 양식으로 짓고 내부 공간은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구성하였다. 현재의 경주시에 신라의 시조왕 혁거세를 위한 전묘로 승덕전(崇德殿)을 창건한 것은 세종 11년(1429)이었다(Kang, 2006, 28). 조선시대 경주부는 全國四府의 하나로 고려시대를 거쳐 임란 이후 경상감영이 대구도호부(大邱都護府)로 이전될 때까지 명실상부한 경상도의 행정중심지였다. 또한 현재의 경주시 일대는 고려시대까지 신라시대의 유적과 함께 불교 사찰이 밀집한 지역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왕조는 구 신라의 왕도 관내에 신라의 시조 왕이자 박씨의 시조인 혁거세에 유교적 제례를 지내는 승덕전(崇德殿)을 건립하기로 한 것이다.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 종족 집단의 주도로 승덕전(1602-1620)이 중건되고 승혜전(崇惠殿: 1887)과 승신전(崇信殿: 1898)이 창건되었다(Kang, 2006, 33-34). 밀양 박씨 주도 하에 진행된 승덕전의 중건은 경주 김씨를 비롯한 다른 종족 집단들에게 자신들 시조의 신위를 봉안하는 전묘를 건립하려는 동기를 부여

하였다. 신라는 단일 성씨의 왕조가 아니라 박씨, 석씨, 김씨의 순서로 왕위가 승계된 왕국이었다. 그러므로 경주를 본관으로 하는 경주 김씨에게 밀양 박씨를 위한 승덕전만 건립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처사로 여겨졌다. 경주 김씨는 역대 신라의 왕을 가장 많이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라가 멸망한 이후 경주시 일대를 세거지로 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종족 집단이었다. 승혜전의 건립에는 본관지인 경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경주 김씨는 물론이고 관직에 진출하여 수도 한양에 거주하는 경주 김씨가 대거 참여하였다(Kang, 2006, 37-40). 승혜전 건립에 대한 조선왕조의 허락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수도(首都) 한양(漢陽)에 거주하는 경주 김씨들은 관직이라는 지위를 기반으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초기 승덕전 창건과 같이 특정한 지점이나 장소를 기념하는 행위는 성리학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애초 승덕전은 혁거세의 능묘로 전해 내려오는 오릉보다는 탄강지인 나정에 인접한 지점에 건립되었던 것이다(Kang, 2006, 28). 조선 후기에 이르면 승덕전의 중건, 그리고 승혜전으로의 승격 과정에는 종족 집단의 주도하에 해당 전각을 시조왕의 능묘에 인접한 위치로 이전하는 과정이 수반되었다. 이는 그 만큼 능묘라는 요소가 종족 집단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반증이다. 능묘에 인접한 전각에서 거행하는 제례는 성리학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전파보다는 오히려 종족 집단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4. 사례 2: 인천시와 월남민 (越南民) 정체성

8·15 광복(1945)이후부터 6·25전쟁(1950-52)을 거쳐 휴전(1952) 직전까지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월남민(越南民)의 수는 최고 50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 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월남민들이 북한

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한 각지에 정착함에 따라 현대 한국인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구 요소가 되었다. 그들은 대다수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에 정착하며 동향인(同鄕人)들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고향에 대한 정보나 감정을 교환하며 일체감을 유지해 나갔다. 그들은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실향민(失鄕民)이라는 독특한 지위를 공동으로 인식하며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아이덴티티를 대외적으로 표상하기도 하였다.

6·25전쟁 발발 이후 황해도민은 1950년 11월부터 1951년 1월말까지, 특히 1·4후퇴 월남민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Kim, 2007, 15). 인천시의 경우에는 당시 월남민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음은 물론이고 그 중 황해도민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Kim, 2007, 53). 그 이유 중 하나는 경의선을 이용한 평안도민과는 달리 황해도민의 경우 서해상의 해로를 주된 월남 경로로 선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인천시에 6·25전쟁 이전 이미 정착한 연고자가 많이 모여 있었으며 언젠가 돌아갈지 모르는 고향과 가깝다는 것이었다(Kim, 2007, 26). 실제로 일제강점기부터 남북 분단 이전까지 황해도의 해안이나 도서 지방과 가까운 관계로 선박을 이용한 왕래가 편리하였기 때문에 인천시로의 황해도민의 유입이 적지 않았다.

인천시에 정착한 황해도 월남민 상당수는 월남 이후에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부두 노동과 같은 막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항구 도시인 부산시, 속초시, 군산시와 마찬가지로, 인천시의 경우에도 월남민들은 부두 노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부두 근처에 정착하였다(Kim, 2007, 26-27). 인천시에서 월남민 상당수가 최초로 정착한 곳은 부두에 인접한 동구 만석동·송현동, 중구 북성동·송월동·답동 등지였다. 동구 만석동과 송현동, 특히 송현동 산 1번지인 속칭 ‘수도국산’은 대표적인 황해도민 정착촌이었다(Kim, 2007, 30-31). 또한 6·25전쟁 직후에는 맥아더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과 인접한 동구 만석동과 중구 북성동 일대에 천막으로 조성한 피난민 집단 수용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서울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황해도 중앙도민회는 전국적으로 28개 지구 도민회, 20개 시·군민회, 208개 읍·면민회로 구성되어 있다(Kim, 2007, 66-69).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조직되어 있는 각급 동향조직(同鄕組織)은 전국 각지에서 황해도민이라는 동향인(同鄕人)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인천시에는 인천지구 황해도민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남구 송의동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다(Kim, 2007, 69). 인천지구 황해도민회는 다시 부녀회, 청년회, 체육대회와 같은 개별적인 활동을 통하여 황해도민끼리의 친목과 단결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황해도 출신자들은 수도권 거주자를 중심으로 출신 시·군별로 집단적으로 망향동산이나 망향제단을 조성하고 주기적으로 망향제(望鄕祭)를 함께 거행하고 있다. 이러한 망향동산이나 망향제단은 대체로 이북 5도민 전체를 위해 대대적으로 조성된 ‘동화경모공원’이 위치한 경기도 파주시 방면에 자리 잡고 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황해도민은 다른 지방 출신의 월남민들과 함께 남구 용현동에 있는 수봉공원 꼭대기에 망배단(望拜壇)을 별도로 설치하였다(Kim, 2007, 72). 여기에서 그들은 매년 3회(설, 한식, 추석) 인천시에 거주하는 이북 5도민을 위한 합동 망향제를 올리고 있다. 그런데 수봉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수봉산은 황해도민의 집거지 가운데 하나인 학의동에 인접해 있다. 여기에 거주하는 황해도 출신자에서 수봉공원은 평소 발걸음이 잦다는 이유로 애착을 많이 느끼는 장소이다. 이러한 수봉공원에 망향동산이나 망향제단이 건립됨으로써 수봉공원은 황해도민이 자기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구심점으로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로 이주한 황해도민 1세에 의한 향토문화의 전승과 보존은 이후 후세대로 전수되어 최종적으로는 제 2의 고향인 인천시의 민속 문화로 정착하였다. 남북 분단에 따른 실향민이라는 황해도민의 지위는 황해도민으로 하여금 인천시에 자신들의 향토문화를 이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황해도 평산군의 소놀이굿, 해주시와 강령군의 강령탈춤, 은율군의 은율탈춤, 서해 5도의 서해안 풍어제는 인천시 동

구에 소재하는 문화재로 엄연히 보존되고 있다(Kim, 2007, 72-77). 2006년에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월남민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북 5도 전통 민속 예술제'가 수봉공원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와 같은 향토문화의 자발적 이식과 전승은 황해도 출신자가 인천시라는 타향에서 문화적 동질감을 재생산하는 것은 물론 인천시를 자기 고향과 동일시하는 장소적 동질감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황해도 출신자는 인천시라는 타향에서 애乡심을 기반으로 문화적이고 장소적인 동질감을 재생산하는 것만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서북 청년회는 6·25전쟁 중에 인천시에서 방위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반공에 관련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휴전 이후에 인천시가 반공주의를 대표하는 도시가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Kim, 2007, 77). 또한 서북청년회는 자유공원 일대에서 전개된 인천상륙작전 동안 해군의용대를 조직하여 군 작전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자신들이 반공주의를 대표한다는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실제로 휴전 이후 그들은 반공주의라는 자기 고유의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표상하는 건축물 건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6·25전쟁이라는 현실적 체험을 통해 내재화된 그들의 반공주의는 통일관, 통일연맹회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등과 같은 건축물을 건립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통일관과 통일연맹회관이 수봉공원에 건립된 것은 수봉산을 황해도민에게 문화적이고도 정치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는 장소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자유공원'이라는 명칭은 물론이고 자유공원에 서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은 황해도 출신자에게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상징물이다. 그들에게 자유공원의 '자유'라는 명칭은 북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자유를 찾아 남하한 자신들에 대한 망명처를 상징한다. 그들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감행한 맥아더 장군을 남한이 공산화되어 자유를 빼앗기기 직전에 자신들을 구한 은인으로 평가한다. 황해도 벽성군민회 회장이 '맥아더 장군 동상 보존 시민연대' 회장을 맡을 정도로 황해도 출신자들에게 맥아더 동상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 상징물이다. 동상 철거 운동이 한창이었

던 2005년부터 맥아더 동상 주변에는 동상 철거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현수막이 인천지구 황해도민회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게시되었다(Kim, 2007, 79).

황해도민회의 공식적인 견해에 의하면, "확고한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와 미군 철수에 대한 주장은 적화통일을 원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아더 장군 동상을 결사적으로 사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맥아더 장군 동상은 남북분단과 냉전의 상징이 아니라 호국의 상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Kim, 2007, 79). 수봉공원과 마찬가지로, 맥아더 장군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이라는 장소가 황해도민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인천지구 황해도민회는 반공행사의 정부와의 공동개최, 통일 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보조, 일선부대와의 자매결연사업 등을 통하여 반공주의라는 공동 의식을 한층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두 가지 사례에서와 같이, 한국에서 확인되는 특정한 집단적 정체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산물이다. 다시 말해서 현대의 한국, 즉 남한에서 태어나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들끼리 같다는 생각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변경하는 과정의 연속인 것이다.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총체적인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개별적 아이덴티티는 개인별이나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어떠한 아이덴티티는 보다 넓은 지리적 범위에 걸쳐 다수가 공유하는 반면, 어떠한 아이덴티티는 좁은 지리적 범위에 국한된 채 소수가 공유한다.

현재 한국인은 한편으로는 단일민족이라는 구호처럼 커다란 범위에서는 아이덴티티가 통합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아이덴티티가 분열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인

다. 예를 들면, 한국인과 중국의 조선족이나 일본의 재일동포, 남한인과 북한인, 호남인과 영남인, 수도권 주민과 비수도권 주민, 청년과 노년, 남성과 여성, 부유층과 서민층이나 빈곤층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상호 대립하고 있다.

한국은 자본주의화가 심화되는 1990년대 후반 이전에는 대체로 민족(民族), 종족(宗族)이나 씨족(氏族), 동향인(同鄉人)이라는 관념으로 뭉친 집단들이 특정한 장소를 수단으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며 상호 경쟁하였다. 이러한 아이덴티티들, 그리고 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장소들은 최근에는 그 유효성이 다소 약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전히 건재하다. 그리고 자본주의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시민(市民), 소비자(消費者), 이주자(移住者) 등 관념을 중심으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새로운 집단들이 출현하여 성장하며 기존의 아이덴티티에도 도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현재 한국에서 하나의 개인이나 집단을 기준으로 할 때 다양한 아이덴티티가 혼재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래된 아이덴티티와 새로운 아이덴티티는 모두 특정한 장소와 실질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형성되기도 하고 상호 경쟁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국학을 지향하는 한국 인문지리학이 설정해야 할 목적의 하나는 현대 한국인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아이덴티티의 복합적이고도 경합적인 구성을 장소와의 관계라는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보편적 한국인의 미래상, 즉 아이덴티티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과정에는 (패권적) 이데올로기나 (정치·사회적) 권력(이나 자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 연구에서 정의하는 이데올로기는 물리적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나의 주장에 동의하게 하는 상징적 수단이다. 특정한 아이덴티티의 구축과 고착에는 장소가 매개로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이러한 매개의 작용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이 이데올로기나 권력(이나 자본)이다.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과정을 꿰뚫어보고 우리들을 분열시키는 요인을 찾아내려면

이들 삼자의 관계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삼자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아이덴티티, 장소, 이데올로기나 권력이다. ‘한국학으로서의 인문지리학’은 이러한 삼자 관계의 역동성, 지속성, 은밀성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장소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평양시와 서울시, 성남시의 신·구시가지, 광주시의 충장로와 금남로, 동작동 국립묘지와 광주 5·18 묘역, 서울역 광장과 서울시청 앞 광장, 롯데월드와 코엑스 몰, 영등포 타임스퀘어, 청계천, 인천시의 차이나타운, 안산시 원곡동 등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아이덴티티 형성에 기여하는 3대 요소들을 우리들이 파악하기가 용이한 순서로 나열하면 아이덴티티, 이데올로기나 권력, 장소이다.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나 권력은 인간적 요소이므로 그만큼 관찰하거나 파악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이에 반해 장소는 비인간적 요소이므로 그 만큼 관찰하기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이것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대화가 불가능한 물리적 대상이며, 하나의 대상으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나 권력을 통제하는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하여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장소를 비밀스럽게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즉 남한에서 크고 작은 규모의 아이덴티티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수행하는 은밀한 역할을 파헤치는 인문지리학의 노력이 요구된다. 만일 이것들의 은밀성을 포착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아이덴티티의 근원은 물론이고 그 재생산 과정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현대 한국에서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가 통합보다는 분열로 오히려 치닫해 되기까지 어떠한 장소가 반복적으로 은밀한 작용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파헤쳐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장소와 아이덴티티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국학으로서의 인문지리학’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표는 전지구화의 시대에 적합한 장소 개념, 즉 외향적이고 진취적인 장소 의식을 한국인들에게 널리 전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장소 의식은 보다 더 넓은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의식하면서 지구적

(global) 규모와 국지적(local) 규모의 장소를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느끼고 사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한국인들에게 계몽적으로 보급해야 하는 비판적 장소 개념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첫째로 장소가 절대로 정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개념이다. 둘째로는 장소가 단순한 울타리를 치며 구분하는 경계를 반드시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현실 세계에서 장소는 분명히 단 하나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내부적 갈등으로 만연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Agnew, J. A. and Duncan, J. S. (eds.), 1989, *The Power of Place: Bringing Together Geographical and Sociological Imaginations*, Unwin Hyman, Boston, Massachusetts.
- Agnew, J. A., 2002, *Place and Politics in Modern Ital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 Choi, Y. R., 2009, *Spatial Pattern of Voting Acts and Development of Political Identity - Focused on Incheon Citizens Who Immigrated From Honam*,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Cresswell, T., 1996, *In Place/Out of Place: Geography, Ideology and Transgress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Entrikin, N. J., 1997, Place and region 3,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1(2), 263-268.
- Entrikin, N. J., 2002, Democratic place-making, identity and cosmopolitan place, *International Sociology*, 14(3), 269-282.
- Gay, P. d. et. al. (eds.), 2000, *Identity: A Reader*, SAGE Publications, London and Thousand Oakes.
- Hall, S. and Gay, P. d. (eds.), 1996,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SAGE Publications, London and Thousand Oakes.
- Harvey, D., 1996,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Blackwell Publishers, Cambridge, Massachusetts.
- Jeon, J. H., 2001, Multi-layers of Geographical Meanings in the Korean Bonkwon,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6(1), 35-51 (in Korean).
- Jeon, J. H., 2002, *Migration and Regionalization of the Lineage Group in Korea - from the 14th century to the 19th century*,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ang, S. H., 2006, *The Lineage groups' Representation of Historical Landscape in Gyeongju cit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eith, M. and Pile, S. (eds.), 1993, *Place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Kim, J. S., 2007, *Settlement and Formation of Identity of 'Hwanghaedo people' in Incheon Cit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im, S. B. and Ryu, J. H., 2008, A Theoretical Construction for the Cultural-Political Study on the Place Nam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3(4), 599-619 (in Korean).
- Kim, Y. A., 2010, *The Changing Place Identity of The Korean Folk Villag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im, Y. S., 2010, *The spatial pattern of the presidential and general elections associated with the local identity - in case of the western Chungnam*,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Leem, B. J., 2008, *A Study on the Constitution and Identity of Nae-Po Region*,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Leem, B. J. and Ryu, J. H., 2007, A Search of Regional Concept in the Post-Modern Era: In Case of Identit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2(4), 582-600 (in Korean).
- Massey, D., 1994, *Space, Place and Gen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Massey, D. and Jess, P. (eds.), 1995, *A Place in the World?*

류제현

Places, Cultures and Globalization, The Open University Press, Oxford.

Pile, S. and Keith, M. (eds.), 1997, *Geographies of Resistanc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Ryu, J. H. and Kim, J. S. and Choi, Y. R., 2010, The Elements of Population and Culture in the Construction of Incheon City Identity, *The Journal of Incheon Studies*, 13, 229-274 (in Korean).

Sack, R., 1992, Place, *Consumption and Modernit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Sharp, J. P. et al. (eds.), 2000, *Entanglement of Power: Geographies of Domination/Resistanc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Yoo, J. R., 2007, *The Making of local identity in The Hwagae*

Valle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교신: 류제현,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 7번지,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jhryu@knue.ac.kr, 전화: 043-230-3616)

Correspondence: Je-Hun Ryu, Department of Geograph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won-Gun, Chung-Buk, 363-791, Korea(e-mail: jhryu@knue.ac.kr, phone: +82-43-230-3616)

최초투고일 2012. 1. 26.

수정일 2012. 2. 19.

최종접수일 2012. 2. 24.